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제10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이사장(가운데)이 수상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 한덕중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 최정균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안정민 울산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왼쪽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제정한 제10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김진수(52)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 임상의학부문에 한덕중(67)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가 선정됐다. 젊은의학자부문은 최정균(40)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와 안정민(40) 울산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수상했다.

아산재단은 기초·임상의학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수상자 4명에게 총

상금 7억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3월 21일 오후 6시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과 김영갑 의학한림원 분회장·오우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장·정상영 대한이식학회 회장·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이승규 아산의료원장(아산의학상 운영위원장)·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등 학계와 의료계·의학관련기관 인사, 이흥구·이상주 이사를 비롯한 아산재단 임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과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서판길 울산과학기술대 교수 ·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학장 · 고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 조승우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의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으며, 2008년 제1회 수상자로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선정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21명에게 아산의학상을 수여했다.

“의과학자들의 연구의욕 높이겠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기초와 임상의학부문에 매년 한 명씩 번갈아가며 시상했고, 제6회부터 기초와 임상에서 각각 한 명씩, 또 젊은의학자부문에서 두 명씩 모두 4명으로 수상자를 늘렸다. 2016년 제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부터는 수상자 범위를 해외 의과학자로 확대해 로베르토 로메로(Roberto Romero) 미국국립보건원 교수가 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제적인 의학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아산의학발전기금을 조성했으며, 400억 원의 규모로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아버님의 16주기인 날이다. 아버님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자고 하시면서 설립하신 아산재단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는다. 뜻 깊은 날, 뜻 깊은 해에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아산재단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아버님은 1989년 서

울아산병원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학은 참으로 무한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또한 한이 없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산재단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과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에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유전자의 일부를 자르거나 수술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선도하면서 유전 질환이나 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김진수 단장과, 우리나라 장기이식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췌장 이식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달성한 한덕중 교수,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DNA를 분석하여 암 등 질병의 원인인자를 규명한 최정균 교수와 피부를 크게 절개하는 대신 혈관에 관을 삽입해 스텐트 등을 정착시키는 시술로 심장혈관 및 판막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지침을 제시한 안정민 교수 등 올해 아산의학상 수상자와 그 업적을 소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수상자 네 분의 빛나는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겸손한 자세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사표가 될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한 뒤 “아산재단은 탁월한 업적으로 의과학 발전을 이끄는 분들을 찾아내어 의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지원하겠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 지었다.

새로운 희망 제시한 의과학자들

제10회 아산의학상은 지난해 6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연구의 일관성과 독창성, 해당 연구의 국내외 영향력, 의학발전 기여도, 후진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



① 젊은의학자부문 시상인 이승규 아산의학상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왼쪽부터 이승규 위원장, 최정균·안정민 교수. ② 시상식에는 280여 명이 참석했다. ③ '나이팅게일 싱어즈'의 축하공연 모습.

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 단장(12~15p 참조)은 유전자의 일부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교정할 수 있는 3세대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정확성 개선을 통해 유전자 수술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단장이 개발한 유전자가위는 각종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수 단장은 “아산의학상은 대한민국 의생명과학자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면서 “난치병 치료와 농작물·가축 개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일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한덕중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16~19p 참조)는 신장 및 췌장이식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1992년 7월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이식, 1992년 10월 국내 최초 췌장 단독이식에 성공했다. 한 교수는 신장 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다인 4,664례를 달성했으며, 췌장 이식은 352례를 달성했다. 또한 면역억제제 및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한 연구로 이식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인 업적을 인정받았다.

한덕중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서울아산병원 설립 초기에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를 뵈는 적이 있다. 당시 40대로 젊었던 세계 존댓말을 쓰시면서 의견을 경청하시던 설립자는 그날 이후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됐다”고 회고한 뒤 “미국의 어떤 이식센터보다도 많은 이식 수술을 기록한 성과는 서울아산병원 전체가 헌신적인 도움을 준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최정균 교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

능으로 분석해 암 유발과정을 규명한 공로를 평가받았으며, 안정민 교수(20~21p 참조)는 수술 없이 혈관을 통한 최소 침습시술로 심장질환에 새로운 치료지침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정균 교수는 “아산의학상 수상 후 연구 실적이 더 좋아진 역대 수상자들처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고, 안정민 교수는 “이번 수상이 큰 격려가 됐다. 더 나은 연구 성과를 내도록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과학자들의 중요성 인정하는 아산재단

축사는 ‘우리나라 핵의학의 대부’로 불리는 이명철(69)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이 맡았다.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에 선임된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산의학상의 가장 훌륭한 점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술로 봉사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연구에 전념하는 의과학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것”이라면서 “40여 년간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아산재단이 지난 10년간 의과학자들을 지원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심에 감사드린다. 이번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분야가 세계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만찬에 이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인 ‘나이팅게일 싱어즈’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서시’와 ‘남춘’ ‘내 나라 내 겨레’를 불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안코르 곡인 ‘아빠의 청춘’으로 시상식장을 흥겹게 만들었다. 🎵

※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인사말과 축사, 수상소감, 그리고 관련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